

## 벌써 2년째 동고동락... "쪽 함께 가야죠"

예능 '금쪽같은 내 새끼'서 첫 호응 아이 상담에서 성인으로서 폭 넓혀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2막 문 열어

오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 부지기수 '인간'을 이해하는 시선으로 봐줬으면"

김 "치유 과정에서 시청자 많은 공감 새 도전이요? 신선한 소재 항상 고민"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컸죠!"

자식을 둔 부모라면 이 사람을 '영접'

하는 게 소원이자 꿈이다. '무릎이 닿기도 전에' 아이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무릎팍도사'가 아니라 '육아대통령' 오은영(65) 정신건강의학과 박사다. 요즘엔 아이들을 넘어 다 큰 '금쪽이'의 마음까지 어루만진다.

인터넷에서는 오 박사와 상담하기 위해 1년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부터 상담비 100만 원도 아깝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오 박사의 '매직'이 시작된 곳은 따로 있다. 바로 채널A 예능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이다. 2020년 5월 첫 방송 이후 무려 80여 명이 넘는 아이들과 그 부모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개선했다.

그의 앞에 서면 입을 굳게 닫은 아이도 속 얘기를 털어놓고, 화내지 바빴던 부모는 뒤늦게나마 자녀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며 눈물을 쏟는다. 그 옆에 연출자 김승훈 PD도 함께 했다.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참여한 가족들"을 살피고, 오 박사가 더 효율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년간 팀워크를 쌓은 이들은 지난해 9월 성인 상담으로 폭을 넓힌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2막 문을 열었다.

23일 서울 상담동 DDMC에서 만난 오 박사와 김 PD는 '금쪽 팀워크'를 쌓아온 과거와 현재, 미래 세 키워드로 돌아봤다.

### ●과거... "끊임없는 고민과 진정성"

2년 전, "두 아이의 아빠" 김승훈 PD가 "연예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출연을 제안 받은 오 박사는 "모두가 공감할 '사람 사는 이야기'가 필요하"고 힘주어 말했다. 김 PD는 곧바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포맷을 바꿔 내밀었다.

'금쪽같은 내 새끼'의 시작이었다.



채널A 예능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의 주역인 연출자 김승훈 PD와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왼쪽부터)가 23일 서울 상담동 DDMC에서 포즈를 취하며 활하게 웃고 있다. 주현희 기자 leth1147@donga.com

### -쉽 없이 달려왔다. 팀워크는 어떤가.

오은영(이하 오): 신애라, 정형돈, 장영란, 홍현희 등 출연자부터 스태프까지 모두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진료를 끝낸 후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출연 가족의 영상 검토하고 전화통화로 제작진과 마라톤 회의를 하는 날이 부지기수죠. 오죽하면 농담 삼아 "오, 채널A!"라며 치며는 표정을 지을까요. 하하하!

김승훈 PD(이하 김): 출연 가족 대부분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나온 분들이예요. 그만큼 모두가 아이들이 편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요. 경청과 배려 속에서 '둥그런' 언어를 쓰며 우리만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죠.

### -보람된 순간은?

오: 2년간 시청자의 신뢰를 잘 쌓은 것 같아서 보람돼요. 아이들마저 '금쪽같은 내 새끼'에 출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프로그램의 A부터 Z까지 진정성 하나로만 만들어진 정성과 애씀이 통한 덕분 아닐까요.

김: 초반에 시청자들이 '이런 프로그램 없었으면 안 된다'며 시청률 올려주자는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줬어요.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이제 사람들이 '금쪽같은 내 새끼'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인지 명확히 아는 것 같아요. 출연자의 이름 대신 '금쪽이'라고 부르거나 한 가족의 분량을 되도록 회에 담아 문제점을 노출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노력이 통한 셈이죠.

### ●현재... "진심에 다가서는 걸 두려워 말라"

-프로그램이 가져온 변화를 실감하나.  
오: 방송가 안팎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래요. 최근 어린이의 '사생활권'을 위해 출연자 얼굴을 가리지는 의견도 봤어요. 다양한 토론을 보며 매사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최선을 다 해요. 다만 아동을 넘어 '인간'을 이해하는 시각으로 프로그램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아이의 얼굴을 가리면 자칫 문제 행동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져다줄 수 있어요. 소아암 환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지 않듯 '금쪽이'의 고

민이 우리와 다르지 않고, 감기처럼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요.

김: 20~30대 시청자들에게도 반응을 이끌어내 제작진으로서 뿌듯해요. 오 박님의 대화로 출연자들이 치유 받는 과정이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린 결과예요. 성인 상담을 소재로 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기획한 이유이기도 해요.

오: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인식하는 계기가 됐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욕구가 강해졌다는 것은 사회가 성숙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런 변화가 제게 남다르게 다가와요.

### -최근 프로그램에 다양한 변화를 줬다.

오: '금쪽 상담소'로는 상담 쪽을 어른들로 넓혔고, '금쪽같은 내 새끼'로는 방송인 이지현을 통해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는 방송 경험이 많고,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도전했어요. 두 프로그램을 통해 진심에 다가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주변의 마음을 함께 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 ●미래... "건강 허락하는 한 끝까지"

-하고 싶은 새 도전이 있다면?  
김: 신선한 소재를 늘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에 홈스쿨링을 다뤘는데 재미있었어요.

오: 머릿속에는 정말 많아요.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해외로 나가 교민들을 만나 언어적·문화적 장벽에 부딪혀 오는 고민을 들어보고 싶어요. '금쪽상담소'는 비연예인 출연자로 확장시키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어요.

### -서로를 향한 '러브콜' 한마디를 남긴다면.

김: 요즘 오 박사님이 방송가 섭외 '0순위'예요. 그럼에도 '금쪽'만의 따뜻한 끈이 잘 연결돼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매력에 분명하니까요. 부디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오: 섭외 0순위? 아니라고는 못 하겠네. 하하하! 방송은 짧은 시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죠. 그 목적과 맞닿는 '금쪽' 시리즈는 제게 참 귀하고 가치 있어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제작진이 있다면 공감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작진이 있다면 힘이 나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할 거예요. 김 PD님, 걱정 마세요. 저 꽤나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UP & DOWN

## 헨리의 부실한 사과 친중 논란 불지폈다



헨리

가수 겸 방송인 헨리가 '친중 논란'에 휩싸이자 해명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반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 논란은 최근 헨리가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에 위촉되면서부터 불거졌다. 누리꾼들은 헨리가 그동안 국내보다는 중국 활동에 집중하면서 친중국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 공의 홍보대사로 나서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헨리는 SNS를 통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오성기와 중국을 사랑한다는 글이 써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논란이 커지자 헨리는 최근 SNS에 서툰 한국어로 "제가 잘못된 게 있다면 죄송하다. 저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고 저의 피 때문"이라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사과문에 진정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저의 피'라는 단어를 사용해 문제를 지적했던 누리꾼들을 인종차별자로 몰아세웠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부실한 사과가 논란만 더욱 커지는 꼴이 됐다.

헨리의 소속사 몬스터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헨리가 부정확한 표기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혼란을 초래한 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오해와 루머, 부정적인 시선이 매우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중국에 대한 비난 댓글을 골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이나 악플, 비방, 분란 조장글을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헨리와 소속사의 연이은 해명과 사과에도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 연예뉴스 HOT 3

#### '알츠하이머' 윤정희 성년후견인에 딸 지정

법원이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78·손미자)의 성년후견을 개시했다.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바이올리니스트인 딸 백진희 씨가 2020년 10월 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성년후견인은 백씨로 지정됐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앞서 윤정희의 동생인 윤정희가 2019년 5월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6)와 파리로 건너간 뒤 방치됐다고 주장하며 후견인 선임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였다. 이에 백건우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방탄소년단 제이홉, 코로나 확진 판정

그들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24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제이홉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진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로, 현재 이후통외에 다른 증상은 없다. 소속사는 "자가격리 및 재택 치료를 중요한 이후 다음달 스케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4월4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할 뒤 9~10일과 16~17일 네 차례에 걸쳐 콘서트를 연다.

#### 원로가수 오기택 지병으로 별세...향년 83세



오기택

1960년대를 풍미한 원로가수 오기택이 23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1996년 바다뉴스를 갔다가 사고로 크게 다쳐 건강이 악화된 고인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다 최근 증세가 악화해 유명을 달리했다. 빈소는 28일 서울 한강성심병원에 차려진다. 평생 미혼으로 지낸 고인은 전 재산을 고향 전남 해남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1961년 12월 제1회 KBS 직장인 콩쿠르에 동화 백화점 대표로 출전해 1등을 차지하면서 이름을 알린 후 '아빠의 정춘', '영동포의 밤' 등 히트곡을 내놨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 도전 마다않는 브레이브걸스

여섯번째 미니음반 '뽕큐' 선보여 "결 지켜준 이들에 감사 표현한 곡" 엠넷 경연프로 '퀸덤2' 출연 확정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

'여주행의 신화' 걸그룹 브레이브걸스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오랜 무명의 설움을 딛고 지난해 초 스타덤에 오른 이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공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첫걸음은 최근 선보인 여섯 번째 미니음반 '뽕큐'(Thank You)다. 음원차트 여주행의 기적을 몰고 온 히트곡 '롤린'보다 레

트로(복고풍) 장르를 한껏 더 강조한 곡으로 구성했다. 친근한 대중적 이미지로 자신들의 매력을 알리겠다는 각오이다.

특히 앨범 동명 타이틀곡 '뽕큐'는 포기하지 않고 결에서 함께해준 이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노래이다. 디스코 펑크를 토대로 한 레트로 팝 장르로, 신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당초 14일 앨범을 냈지만 일부 멤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23일 뒤늦게 쇼케이스를 연 이들은 "작년 한 해 너무 큰 사랑을 받고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다"며 "그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한 곡"이라고 말했다.

폭넓은 대중성을 겨냥하면서 이들은 엠



브레이브걸스

넷 걸그룹 경연프로그램 '퀸덤2'에서 가요계 동료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퀸덤2'는 걸그룹과 출신 멤버들이 동시에 싱글 앨범을 내고 퍼포먼스 경쟁을 펼치는 프로그램. 씨스타 출신 효린, 여자친구의 비비지, 우주소녀, 이달의 소녀, 케플러 등 6개 팀이 실력을 겨룬다.

소녀시대의 멤버 태연이 진행하는 무대에서 사실 동료들과 경쟁하는 것은 '모 아니면 도'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에 브레이브걸스는 "경연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라면서 "롤린"으로 해외 팬도 많이 늘었는데 코로나19로 만나러 가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글로벌 팬들에게 우리 그룹을 더 알릴 기회라고 생각해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주행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들이 나설 수 있는 무대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퀸덤2'가 더욱 소중하게 보인다. 이들은 "'여주행 걸그룹' 말고도 우리에게도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오랜 공백으로 친한 걸그룹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른 출연자와 친분이 생기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